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 이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을 통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공보담당관 차장검사 최기식
전화 031-731-4070/팩스 031-739-4710

보 도 자 료 2019. 2. 8.(금)

자료문의 : 형사4부장실
전화번호 : 031-742-1235
주책임자 : 부장검사 정광일

제 목

조작 장치로 허위 성능 인증을 받은 소방업체 적발
- 성능 미달의 소방설비를 판매한 소방업체를 안전사고 발생 이전에 적발하여 대표이사를 구속기소한 사례 -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환경·보건범죄전담부, 부장검사 정광일)은 전자적 조작 장치를 이용하여 소방시설인 포소화설비장치에 대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성능 인증을 받은 뒤, 화력발전소, 저유소 등 화재 위험이 높은 시설에 위 장치 60대를 판매하고 대금 33억 원을 편취한 소방업체 대표이사인 피의자를 2019. 1. 31. 구속기소하였음
- 이 사건은 국내 1위의 포소화설비 생산업체가 조작 장치를 이용하여 성능 인증을 받은 뒤 화력발전소 등에 판매하였다는 제보를 받고 피의자가 운영하는 업체를 적발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전 엄단한 사례임
-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안전사고 부패사범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하여 대형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1 수사 착수 배경 및 경과

1 수사 착수 배경

- 피의자가 운영하는 소방설비업체가 조작 장치를 이용하여 포소화설비)에 대

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의 혼합비시험을 통과한 뒤 허위로 성능 인증을 받아 해당 제품을 당진 화력발전소 등 화재 위험이 높은 시설에 판매·설치하였다는 위 업체 前직원들과 기술원 고발장이 수사기관에 각 접수됨

- 본건 포소화설비가 화력발전소, 저유소 등 화재 위험이 높은 시설에 설치된 점, 성능 미달의 소화설비 설치에 대형 안전사고 발생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는 점에서 본건 범행을 명확히 밝히기 위하여 검찰이 직접 수사에 착수함

2 수사 경과

- 18. 3. 허위 성능인증 받은 포소화설비에 관한 고발장 접수
- 18. 4.~12. 본건 범행에 이용된 조작 장치 관련 발주서 확보, 조작 장치를 제작한 전기설비 업체 대표와의 이메일 확인, 출석 요구에 불응한 참고인에 대한 방문 조사 등을 통하여 증거자료 확보
- 19. 1. 30. 피의자 A○○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 19. 1. 31. 피의자 A○○ 구속기소

2 피의자 및 범죄사실 요지

□ 피의자

- A○○(남, 50세, 소방설비업체 대표)

□ 범죄사실의 요지

- 2014. 7.경부터 2017. 12.경까지 22회에 걸쳐 조작 장치를 이용하여 기술원의 성능인증 받은 포소화설비장치인 폼○○ 60대를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들에게 판매하고, 매매대금 명목으로 약 33억 원을 교부받아 사기

1) 폼(泡 - Foam, 거품)소화설비는 물로는 효과가 적거나 화재가 확대 위험이 있는 가연성 액체 등의 화재에 사용하는 설비로 물과 포소화약제를 일정한 비율로 혼합한 수용액을 공기로 발포시켜 형성된 미세한 기포의 집합체가 연소물의 표면을 차단하는 질식소화 효과와 포에 함유된 수분에 의한 냉각소화 효과가 있으며, 대규모 화재의 소화에도 적합하고 옥외 소화에도 효과가 있으며 소방차에도 설치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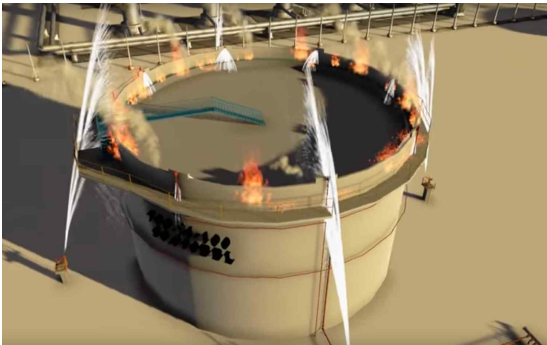
- 2014. 7.경부터 2018. 2.경까지 58회에 걸쳐 조작 장치를 이용하여 위 포소화설비장치에 대한 기술원의 성능 인증을 받아 위계공무집행방해

3 본건 범행 경위 및 범행 수법

- 피의자가 생산하는 포소화설비인 '폼○○'는 포소화약제를 사용농도에 적합한 수용액으로 혼합하여 폼(Foam 거품)을 생성한 뒤, 화재 발생장소에 폼을 분사하는 방식으로 화재를 진압하는 소방시설로, 국가화재안전기준은 화력발전소, 저유소와 같이 화재 위험이 높은 특정소방대상물에 관하여 기술원의 성능인증을 받은 포소화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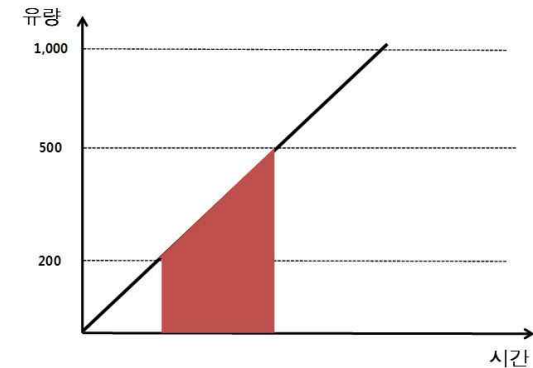


[현장에 설치된 폼○○의 모습]



[폼○○ 가상 사용례]

- 포소화설비는 유량(물의 양)액의 변동에도 수용액(물)과 포소화약제2)의 일정한 혼합비율을 유지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추어야 하고, 혼합비가 유지되지 않으면 폼(거품)이 원활하게 생성되지 아니하여 소방 성능이 현저히 저하되므로, 기술원은 혼합비시험을 통하여 포소화설비의 성능을 검사함



[예: 유량 200~1,000으로 성능인증을 받은 포소화설비가 실제로는 유량 500~1,000 구간에서만 혼합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유량 200~500 구간(붉은 색으로 표시된 부분)에서 폼이 생성되지 아니하여 소방 성능이 현저히 저하됨³⁾]

- 피의자는 '폼○○'이 저유량 구간에서 일정한 혼합비를 유지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추지 못하자, 회사 2층 내실에 전자적 조작 장치를 설치한 뒤, 기술원의 혼합비시험 과정에서 실제 혼합비가 아닌 설정한 혼합비가 모니터에 표시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기술원 담당 직원을 속여 성능 인증을 받음

2) 포소화약제는 거품을 발생시켜서 거품을 화재의 표면에 덮어 가연성증기와 산소의 접촉을 방지하는 질식효과와 거품 속에 함유된 수분에 의한 냉각효과에 의해 소화시키는 소화약제로 단백질, 수정막포, 합성계면활성제, 알콜형포소화약제가 있음
3) 유량(물의 양) 구간이 넓은 포소화설비는 다양한 폼 분사장치를 사용할 수 있어, 유량 변동에도 소방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포소화설비 생산 기술의 핵심임



[조작 장치 사진 : 조작 장치를 작동하면 ① 모니터에 설정값이 표시됨]

4 이 사건의 특징

- 본건 포소화설비가 설치된 시설은 화력발전소, 저유소 등 특수기연물을 저장·취급하는 시설로서, 화재 초기에 설치된 포소화설비가 불길을 제압하지 못하면 특수기연물이 전부 소진될 때까지 고열로 인하여 소방차의 접근이 어려워 현실적으로 진화할 방법이 없으므로, 포소화설비는 고도의 안전 성능을 갖추고 있어야 함
- 2018. 10.경 발생한 **고양 저유소 화재 사건**의 경우에도, 포소화설비가 설치되어 있었음에도 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하여 1차적인 화재 진압에 실패하면서 대형 화재로 번져 117억 원이 넘는 막대한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음
- 그러나, 성능 미달의 소방설비를 설치하더라도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적발이 어렵다는 소방설비 업계의 안전불감증으로 인하여 성능 미달의 소방설비가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상황임
- 본건은 국내 1위의 포소화설비 생산업체가 조작 장치를 이용하여 허위로 성능 인증을 받은 사실을 밝혀 위 업체 운영지를 엄벌한 사례로,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에 범행을 적발하여 대형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소방설비 업계 관련자들에게 소방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함**

5 향후 계획

-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한 이후에는 담당자를 처벌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인명 피해와 재산상 피해를 돌이킬 수 없으므로, 앞으로는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불법 소방설비 생산업체를 엄단함으로써, 국민이 검찰에 기대하는 본연의 업무수행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음 ☑